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1. 4. 8.(목) /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 부서	광역환승 시설과	담 당 자	• 과장 조민우, 사무관 김진욱, 주무관 임현민 • ☎ (044) 201-5136, 5135	
보 도 일 시		2021년 4월 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8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교통·도시계획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고품격 GTX 환승센터 구축 위한 총괄계획단 위촉

- 지체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지원·양재·수원역 등 9개 역시에 우선 적용 -

《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》

- 인천에 거주하는 김씨는 부평역에서 환승할 때마다 산재된 버스 정류장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.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경인선에 GTX 노선까지 추가가 되면서 동선이 복잡해지고 부평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, 환승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. 그러나 **교통·도시계획·건축 분야 전문가**로 구성된 **환승센터 총괄계획단**이 연계 교통수단을 꼼꼼하게 고려한 **최적의 환승동선**이 반영된 **환승센터 계획**을 마련한 덕분에, **대중교통 수단간의 환승이 편리**해지고 환승시간도 단축되었다. 뿐만 아니라 **차별화된 디자인**으로 완공된 부평역이 GTX 개통과 함께 **지역의 랜드마크**가 되면서, 대중교통 이용시민이 증가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되는 등 환승교통시설의 개선은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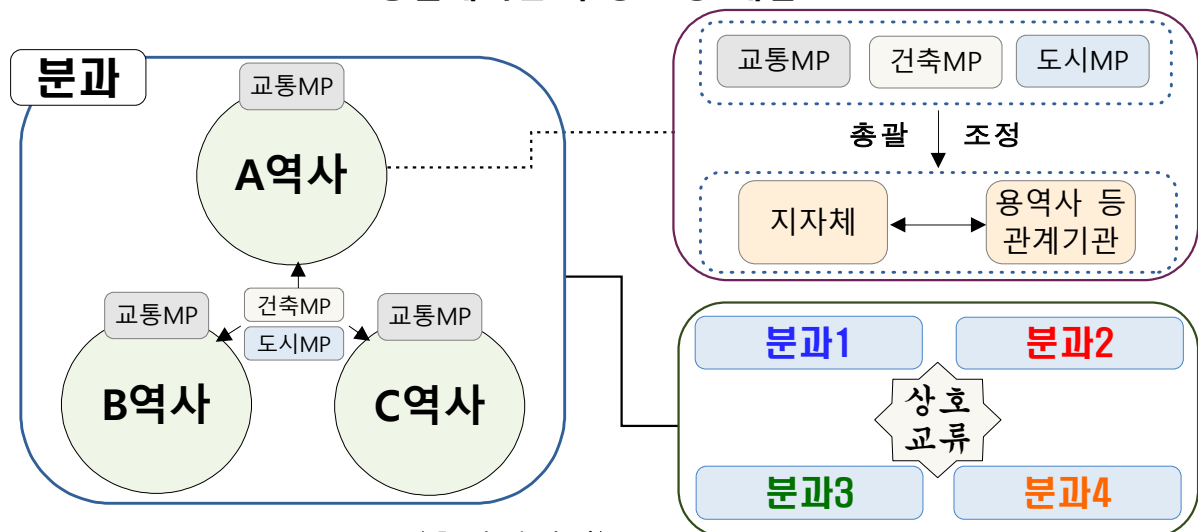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 **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**(위원장 최기주, 이하 대광위)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(이하 GTX) 환승센터 사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**환승센터 총괄계획단**(민간전문가) 17명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.

- 이를 통해,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베니다 아메리카역(Avenida de America)*와 같이 효율적인 **환승체계** 및 **차별화된 건축 디자인**을 갖춘 **고품격 환승센터**의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.

* (해외 유명 환승센터 사례) 스위스 아라우역 버스정류장(Aarau Bus Station),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일즈포스 트랜짓센터 (Salesforce Transit Center) 등 ※참고1

- 총괄계획단 제도란 정책 수립 또는 사업의 기획·운영 단계에 민간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,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환승센터 총괄계획단은 교통분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.
- 환승센터 총괄계획단은 교통·도시·건축·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, 부문별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최적의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·조정·기획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.
-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10개 역사 중 6개 역사(양재, 수원, 용인, 인천시청, 부평, 송도)와 지자체가 총괄계획단 지원을 적극 요청한 3개 역사(덕정, 망우, 킨텍스)에 우선 적용한다.
- 환승센터 총괄계획단은 GTX 노선과 환승센터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4개 분과의 총 17명으로 구성되며,
- 세부적으로는 역사별로 교통 분야 전문가 1인을 위촉하고, 분과별로 도시·건축·토목 등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 전문가 2인을 함께 위촉하여 지자체의 GTX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.

< 총괄계획단 구성·운영 개념도 >



※ MP: Master Planner (총괄계획가)

《총괄계획단 명단》

분과	역사	교통	도시계획	건축	토목
1	양재	금기정(명지대)	김현수 (단국대)	-	박선규 (성균관대)
	수원	손기민(중앙대)			
2	용인	김창균(모빌리티정책연구)	-	이현중 (주)다에이그룹엔지니어링	김성민 (경희대)
	덕정	김정화(경기대)			
3	인천시청	김웅철(인천대)	서민호 (국토연구)	이정형 (중앙대)	-
	부평	소순옥((주)삼안)			
	송도	정우현(KDI)			
4	망우	유소영(한국철도기술연구)	이명범 (P&D파트너스)	오성훈 (AURI)	-
	킨텍스	김채만(경기연구)			

- 대광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 총괄계획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며,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단계별로 관리하여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도시계획 분야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김현수 교수(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)는 "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나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2.4 주택공급대책에서도 보듯이 앞으로는 환승역세권 복합고밀화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"이라면서,

- “총괄계획단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향후 환승센터 사업에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“환승센터 사업은 편하고 안전한 환승은 물론, 효율적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최적 투자를 이끄는 수단으로서 대광위의 중요한 사업”이라며,

- 특히 GTX가 완전 개통되면 하루 백만명의 이용객이 예상되는바 다양한 교통수단과 경제활동이 환승센터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” 된다면서,
- “이번 환승센터 총괄계획단 시범사업을 통해 환승센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GTX 환승센터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지원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시설과 김진욱 사무관(☎ 044-201-513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해외 환승센터 우수사례

㉠ 스페인 아베니다 아메리카역 (Avenida de America)

- 마드리드 지하철에서 유일하게 4개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으로서 지하철 위로 지하 버스터미널을 건설하여 버스 - 철도 간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환승편의 제고
- 지하 버스터미널 내에는 상점,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음



㉡ 스위스 아라우역 버스정류장 (Aarau Bus Station)

- 유기적으로 구성된 구름모양의 캐노피가 눈, 비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함
- 철도와 지선버스간 환승을 담당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음
- 스위스 유명 건축가 Mateja Vehovar과 Stefan Jauslin이 제작에 참여



㉢ 미국 세일즈포스 트랜짓센터 (Salesforce Transit Center)

- Transbay Terminal을 허물고 새로이 건축하여 다양한 샌프란시스코의 교통을 한 곳에서 통합·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짐
- 교통허브이자 상업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옥상은 공원으로 꾸며져 있어 시민들의 휴게공간이기도 함



참고2

환승센터 총괄계획단 역사 위치도

